



다양한 선단으로 신선한 수산자원 어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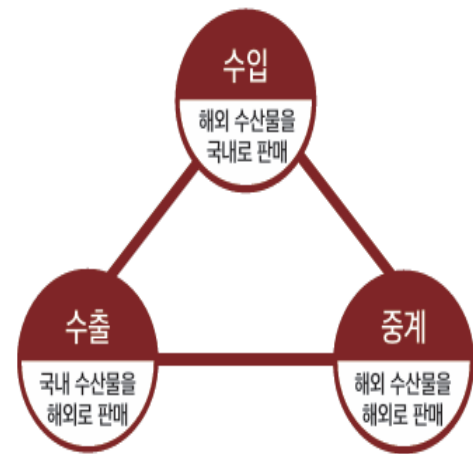
한성기업은 1969년 제1한성호를 북태평양 배령해 도입하여 명태 조업을 시작하여 트롤, 참치연승, 봉수망, 채낚기, 선망, 통발 등 다양한 선단으로 신선한 수산자원을 어획 중입니다.

선단소개

- 북양트롤선 : 북태평양 수역에서 명태 어획 / 척 당 연간 7,000여 톤 어획
- 참치연승선 : 눈다랑어, 황다랑어, 새치 류 등 횡감용 참치 어획 / 척 당 연간 약 400여 톤
- 채낚기 :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오징어 어획 / 척 당 연간 1,500여 톤

수입유통

한성기업은 국내 수입, 판매 이외에도 해외로의 수출, 중계 매출 비중을 높여서 국내외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원양산업

제 1174 호
(2024년 10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물)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해양주권 수호 토론회 참석 / 4
- 협회, 제20회 원양축제 개최 / 5
- 생선 통조림의 원조, 콩치 / 6



이달의 요리

- 콩치파이 / 7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0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54달러 / 8

■ 참치어업 동향

- 중서부태평양 8월 어획량, 약 11만 톤 / 9

- 중서부태평양 8월 전채량 7만 8,600톤 / 10
- 한국 선망어업 WCPO 어획량 전년 대비 6% 증가/11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50달러로 상승 / 12
-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75달러 / 12
- 日 눈다랑어 8월 수입 가격, kg당 646엔으로 하락/13
-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30유로 / 13
- 日 냉동 참치류 8월 수입 통계 발표 / 14
- 2023년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 경제 여건 개선 / 15
- 2025년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80% 증가 / 16
- 24년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40만 톤 / 17
- 중국, 세계 3위 참치 수출국으로 등극 / 18
- 퓨 자선신탁, 전채의 경제적 효과 및 가치 분석 / 19
- PNA FAD 어업 MSC 인증, 5년 재인증 / 21
- EU-기니비사우 어업 협정 5년 연장 / 21

■ 오징어어업 동향

- 페루 자원부 “대왕오징어 자원 부족, 기후 원인” / 22

협회, 해양주권 수호 토론회 참석 해양수송로 및 해양주권 수호관련 정책 토론



우리 협회는 9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양주권 수호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해당 정책토론회는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에서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해양수송로와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해당 토론회는 대한민국해양연맹이 개최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후원하였다.

토론회에는 조승환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대한민

국해양연맹,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해군사관학교, 한국해양기술과학원 등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홍승용 전 인하대 총장을 비롯하여 해군사관학교, 국방대 등 다수 전문가들이 글로벌 해양 안보 정세 및 인도태평양 해양 갈등, 전략 현황 등의 논제에 관하여 강연하였고, 이와 관련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협회, 제20회 원양축제 개최 원양산업 종사자 및 각계 인사 참석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5일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에서 제20회 원양축제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원양축제는 우리 협회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이하 원양노조)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등 13개 관련 단체가 후원하였다.

이번 원양축제에는 조승환 국회의원, 원양노조 박진동 위원장 등 여러 수산계 인사를 비롯하여 원양어선원 및 가족, 원양업계 대표자 및 관련 종사자, 은퇴 어선원, 수산계 고교생, 부산시민 등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장, 경영지원본부장, 부산지부장, 회원지원부가 참석하였다.

원양축제는 노·사·정·학 간 소통과 협력 분위기를 도모하며, 원양어선원과 가족들에게는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선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첫해로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러운 원양어업인'으로 선정된 우수한 원양어선원 8명에게 해양수산부장관상, 부산광역시장상, 부산해양경찰서장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등이 수여되었다.

아울러 축하공연을 비롯하여 원양 바다에서 잡아 올린 대형 참치를 해체하는 참치 라이브 쇼,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행운의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되었으며, 취업상담 부스 또한 운영되었다.



생선 통조림의 원조, 콩치

중국과 대만 신조선과의 경쟁을 이겨낼 대책 마련 필요

콩치란 이름은 아가미 부근에 침을 놓은 듯 구멍이 있어 구멍 “공”자에 물고기를 뜻하는 “치”를 붙인 콩치가 된소리로 변해 콩치라고 불리게 되었다. 속담을 통해 ‘콩치는 서리가 내려야 제맛이 난다’라는 말처럼 실제로 10~11월 서리가 내릴 때 지방함량이 달라지며 가장 맛이 좋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콩치는 북태평양 찬물에 살다가 가을이 되면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다. 동해안으로 내려오는 콩치보다 태평양 연안으로 내려오는 콩치가 지방질이 많아 더 맛이 있다.

콩치는 일본인이 가장 즐겨 먹는 생선 중의 하나로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이다. 일본 막부시대 최고의 권력자인 쇼군이 매사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 메구로 지역의 한 주막집에 들렀다. 예고 없는 방문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 안주인이 본인이 먹으려고 마련해 놓은 콩치를 구워 제공하였다.

생애 처음으로 콩치를 먹어본 쇼군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다시 콩치를 올리라 했지만, 메구로에서 먹은 그 맛을 따를 수 없었다고 한다. 이전에 먹었던 콩치는 워낙 시창할 때 먹은 것이었고, 새로이 올린 콩치는 부하들이 가시를 발라내고 상에 올리도록 하였기에 이전의 맛을 재현하지 못한 것이다.

콩치는 조리할 때 생선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양이 다른 생선보다 많다. 만약 불 조절을 잘못해서 기름이 타면 콩치 살에 쓴맛이 스며들기 때문에 콩치에 칼집을 넣어 빨리 익게 하거나 중간중간 기름을 닦아내고 불조절을 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석쇠로 구워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콩치는 크기에 비해 가시가 역세고 많아 가시가 무를 때까지 익히거나 튀기면 가시가 살에서 맛볼 수 없는 적절한 식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통조림 형태와 잘 어울려 참치 통조림이 나오기 전에는 생선 통조림

은 대부분 콩치 통조림이었다.

콩치통조림은 콩치를 고온 고압으로 익히며 콩치의 가시와 뼈는 독특하면서도 고소한 식감을 제공한다. 콩치통조림은 참치 통조림처럼 기름, 야채 조미액이 들어가지 않고 소금(정제염)과 물(정제수)만 넣어 만들며, 참치 통조림처럼 가시 제거 공정이 필요 없기에 가격도 저렴하다.

김치찌개에 참치 통조림을 넣으면 참치 살이 찌개 전체적으로 흩어지지만, 콩치 통조림을 넣을 때는 콩치 살이 흩어지지 않고 콩치의 기름기가 김치와 잘 어울려 김치찌개의 맛이 더욱 고소해지고 참치보다 살이 부드럽고 연하여 김치찌개 애호가는 대부분 참치보다 콩치를 넣어 끓인다.

이러한 콩치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해 256톤으로 소비에 부족한 생산량을 수입(주로 대만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물가안정과 수입 의존 해결을 위하여 원양어선이 그간 북태평양수역, 러시아수역, 일본수역에서 조업하였다.

원양 콩치조업선은 오징어조업선처럼 빛으로 어군을 유인하여 어획하는 봉수망 어법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일본수역의 경우 201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입어료가 없음에도 국민 정서로 인하여 입어를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수역도 엄격한 관리와 입어료 부담, 자원 감소 등으로 최근에는 북태평양수역에서만 조업하고 있다.

원양어업을 통한 콩치 어획은 2018년 2만 3,701톤을 어획하였으나 해마다 어획량이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3,107톤밖에 어획하지 못하였다. 이에 콩치 가격은 지속 상승하여 과메기는 더 이상 콩치로 생산하기 어려워졌으며, 조업선도 절반(5척)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2백여 척의 중국과 대만 신조 조업선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콩치파이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콩치캔 2개, 사워크림 300g, 마요네즈 200g, 밀가루 6큰술, 계란 3개, 식소다 0.5t, 소금 1작은술, 콩치 통조림 2개, 감자 2개, 양파 1개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계란, 사워크림, 마요네즈를 넣고 섞고, 식소다와 밀가루를 넣어 반죽을 준비한다.
- ② 채칼을 이용해 감자를 가늘게 채 썰고, 양파는 칼로 채 썬다.
- ③ 포크를 사용해 콩치를 으갠다.
- ④ 오븐팬에 ②의 채썬 양파 → ②의 채썬 감자 → ③의 으갠 콩치 순으로 두 번 반복하여 층층이 쌓은 후 1의 반죽을 부어준다.
- 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④의 팬을 넣고 35~40분 구워준다.
- ⑥ 5의 파이가 갈색이 되면 꺼내 타임을 올려 완성한다.



10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54달러

10월 11일 기준 700달러

10월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0.89달러, WTI 가격은 75.56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79.04달러를 기록하였다.

10월 11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700달러로 9월 11일(627달러) 대비 약 12% 상승하였다.

10월 평균(10.1~10.11) 가격은 654달러로 전월 평균(9.2~9.30)인 634달러 대비 약 3% 상승하였다. 전년 10월 평균보다 26% 하락하였고, 전전년 10월과 비교하면 37% 하락하였다.

2024년 평균(1.2~10.11) 가격은 744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7%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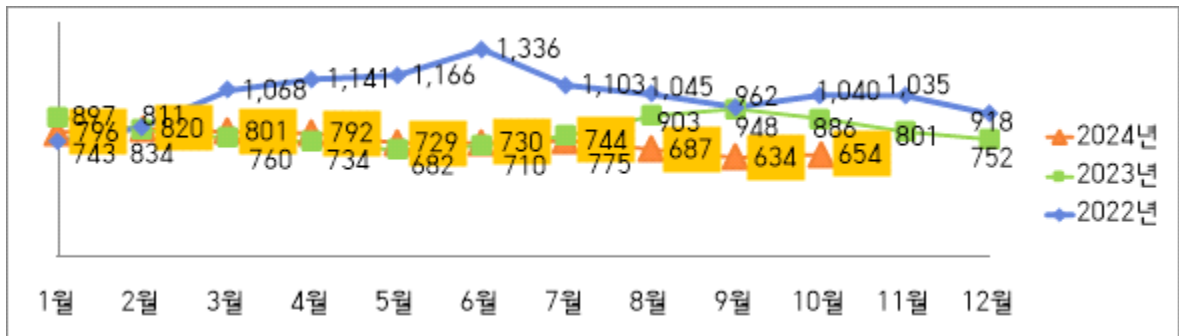
대비 28% 하락하였다.

국제유가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습 가능성, 레바논 지상전 확대 등에 대한 시장 우려 변화와 미국 허리케인 피해 등으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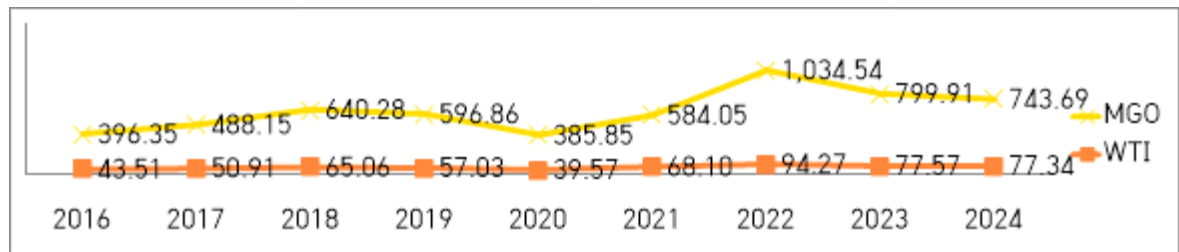
스웨덴은행SEB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하여 석유시설 폭격으로 대응하게 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NBC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 정부에게 군사적인 목표를 집중하고 석유, 가스, 핵시설은 공격하지 않는 비례적 대응을 촉구해 왔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중서부태평양 8월 어획량, 약 11만 톤

가다랑어 어획량 9만 4,200톤 外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은 8월에 조업 강도를 높였으나 어획량은 전월 대비 감소하였다. 선단의 조업은 서부 수역에 집중되었다. 방콕 가공업체들은 향후 수주간 어획량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8월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수역과 공해 수역에서의 조업 노력량은 7월 대비 2% 증가한 3,672일이다. PNA 수역에서의 조업 노력량은 전월 대비 거의 동일 수준인 3,523일이지만, 전년도 동월과 비교하면 약 20% 증가하였다. 반면 공해에서의 조업 노력량은 35% 증가하였다.

조업 노력량은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와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 집중되었다. PNG에서의 조업 노력량은 전체의 49%(약 1,730일), 마이크로네시아에서는 19%(약 670일)이었다. 나우루 수역에서의 조업 노력량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부 선단이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 조업하였음을 암시한다. 팔라우, 투발루, 공해에서의 조업 노력량은 다소 증가하였다. 토켈라우에서의 조업 활동은 보고되지 않았다.

PNA 수역과 공해에서의 8월 총어획량은 17% 감소한 11만 2,000톤이며, 가다랑어 어획량은 20% 감소한 9만 4,200톤이다. 중서부태평양 FAD 금어기는 8월 15일까지 계속되었고, 비상군(free-school) 조업은 7월만큼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금어기에도 불구하고 7월 어획량은 12만 7,000

톤으로 8월보다 많았다.

8월 PNG 수역에서는 전체 어획량의 약 절반인 5만 6,000톤이 어획되었다. 7월 PNG 수역에서의 어획량 비중은 전체의 약 60%였다.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2만 160톤으로 성공적이었다. 나우루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1만 3,440톤으로, 7월 어획량은 3,810톤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팔라우와 토켈라우에서는 어획이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의 8월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21% 감소하였다. 전체 다랑어류 일일 어획량은 19%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들어 월간 최저치를 기록한 8월 전체 어획량에 영향을 미쳤다.

8월 일일 평균 어획량은 31톤으로, 7월 일일 어획량(34톤) 대비 감소하였다. 9월 초까지 집계된 9월 잠정 일일 어획량은 21톤으로, 2개월간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투발루 수역은 선망선단 어획량이 가장 많았던 곳으로, 7월 대비 2배 이상인 일일 평균 84톤을 기록하였다. 공해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75톤으로, 7월 대비 22% 감소하였다. 다른 EEZ에서의 어획량은 투발루 외에는 마셜제도만이 전월 대비 79% 증가한 20톤을 기록하였고, 이외에는 모두 감소하였다. 팔라우와 토켈라우에서는 어획이 보고되지 않았다.

일일 가다랑어 어획량은 26톤으로 7월 대비 21%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8월 평균보다 16% 더 많았다. 8월에 9만 4,200톤이 어획된 가다랑어 어획물은 가공 허브로 운송되거나 태평양에 남을 예정이다. 방콕과 제너럴 산토스로 이동 중인 어획물은 몇 주 안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다랑어는 9월 초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졌으며 일일 어획량은 17톤으로 보고되었다.

대형 및 소형 황다랑어의 일일 어획량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9kg 이상은 동일한 양을 유지하였으며 소형은 11%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형 및 소형 눈다랑어의 일일 어획량은 각각 19%, 23% 증가한 0.1톤, 0.4톤이었다. 9월 초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대형 및 소형 황다랑어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9월 20일, 23일, 24일

중서부태평양 8월 전재량 7만 8,600톤

전월 대비 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아

중서부태평양 8월 참치 전재량은 전월 대비 5% 감소하였다. 그러나 올해 8월 전재량은 지난 수년간의 8월 전재량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중서부태평양 8월 전재량은 총 7만 8,600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7월 전재량 대비 약 4,200톤 감소한 수치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8월 전재량과 비교하면 최소 1만 8,000톤 이상 많은 수치이다.

8월 중서부태평양 어획량은 11만 2,000톤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이 중 약 3만 3,400톤만이 태평양 도서국 가공 허브로 향하였다는 의미이다. 지난 수년간의 월간 기록과 비교하면 올해는 눈에 띄게 감소한 편이다.

방콕에 수개월간 대량의 가다랑어 공급이 이어진 후, 많은 원어 재고를 보유한 통조림 가공업체는 주문 생산 분량만을 매입하였다. 주요 가공 허브인

방콕, 제너럴산토스 외에도 일부 물량은 연말 전에 자유탄관세(ATQ) 일정에 맞춰 EU에 로인을 공급하기 위해 원어가 추가로 필요한 중국 가공업체로 운송되었다. 이러한 수요로 인해 9월 초 가격이 상승하였다.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수역의 전재 건수는 지난달의 수치(132건)와 거의 차이가 없는 130건을 기록하였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전체 전재량의 약 44%에 해당하는 3만 5,000톤이 전재되었다. 미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전재량은 전월 대비 감소한 2만 3,000톤이었으나, 전체 대비 비중은 여전히 29%를 차지하였다. 키리바시에서의 전재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마셜제도와 솔로몬제도에서의 전재량은 다소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9월 24일



한국 선망어업 WCPO 어획량 전년 대비 6% 증가

WCPO 다랑어 어획량 중 90% 차지

한국 참치 선망업계가 대형 선망어선의 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참치 어획량은 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보는 한국이 WCPFC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한국은 WCPO(중서부태평양수역)에서 선망과 연승의 두 가지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 두 어업의 총어획량은 지난해 26만 7,399톤으로 2022년보다 4% 증가하였다. 이 중 약 90%(24만 1,862톤)가 선망어업에 의해 어획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선망업계의 어획량은 가다랑어 대량 어획에 힘입어 31만 4,572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어획량은 감소 추세이다.

2023년 선망어업은 19만 4,241톤의 가다랑어를 어획하여 전년 대비 약 4,000톤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황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조업선은 2022년 대비 1만 258톤 증가한 4만 6,014톤을 어획하였다. 눈다랑어는 8% 감소하였다.

한국 참치조업선은 2019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선박 수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선박 용량에 큰 변화가 있었다. 총톤수 1,500톤 이상의 대형 선망선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중형(1,000~1,500톤) 선박은 감소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대형 선박이 선적

변경에 의한 것인지 새로 건조된 선박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어획 능력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어획량은 황다랑어에 의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국의 참치 선망어업은 파푸아뉴기니(PNG)와 키리바시, 나우루, 바누아투(140°E, 170°W) 사이의 중서부태평양 열대수역에서 연중 조업하며 해양 상황에 따라 동쪽으로 조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작년에는 PNG, 미크로네시아 등 서부 수역과 동부태평양(EPO)을 향한 동부 수역에서 어선들이 조업하였다. 가다랑어는 PNG,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토켈라우의 동부 수역에서 어획되었다. 황다랑어는 팔미라 환초(키리바시), 자르비스섬, 하워드와 베이커 섬의 EPO 근처에서 어획되었다. 이는 조업과 어획량이 WCPO 서쪽에 집중되었던 2022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망연승 선단의 어획 능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은 원양어족 자원, RFMO의 보존 및 관리 조치, 연안국의 허가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한국은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된 참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혼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과학적 조사, 어업인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9월 24일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50달러로 상승 공급 감소 등 영향

공급 감소, 수요 유지, 매입 경쟁 등으로 인하여 태국에서의 가다랑어 가격이 상승하였다.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최근 저점을 찍은 이후 상승하였다.

시장 소식통에 따르면 방콕 냉동 가다랑어 원어 거래는 톤당 1,400~1,450달러 사이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보다 높은 톤당 1,500달러의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다. Atuna는 10월 초 가격을 2주 전 대비 150달러 상승한 톤당 1,450달러로 기록하였다. 9월 초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약 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1주 후 톤당 1,300달러로 소폭 상승하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상승이 7, 8월 중서부태평양 어획량 감소로 인한 원어 공급 감소가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중서부태평양 선망어업 참치 수요는 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필리핀 통조림 가공업체와 중국의 가공업체는 모두 톤당 1,500달러 이상의 가격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연말 전에 유럽 고객에게 자율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냉동 자숙 로인을 전달해야 하므로 가다랑어 수요가 높다. 필리핀 업체는 EU 원산지 규정에 해당하는 참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5월에 필리핀 제네럴산토스의 생산자들은 필리핀 선사인 RD Corporation 등의 조업 미개시로 인하여 공장 공급에 20%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원어 공급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 출처: Atuna, 2024년 9월 30일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75달러 거래량 증가로 전월 대비 상승

소식통에 따르면 만타에서의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지난 수 주 동안 상승하였으며, 이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통조림 가공업체가 톤당 1,450달러에 가다랑어를 매입하였고, 일부 소형 가공업체는 톤당 1,500달러를 지급하였다. 가다랑어 계약은 대부분 1,450~1,500달러에서 체결되었으며, Atuna는 10월 가다랑어 가격을 4주 전 대비 5% 상승한 톤당 1,475달러로 기록하였다.

2022년과 2023년 10월 시점에서 가다랑어 가격

은 톤당 1,800달러, 1,900달러였다.

공급의 소폭 감소로 인하여 원어가 필요한 가공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게 되었다. 동부태평양 선단은 올해 매우 좋은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예과도르 국적 선단은 1월부터 7월 28일까지 전년 대비 61% 증가한 22만 4,562톤의 가다랑어를 어획하였으나, 9월에 전반적인 어획량은 소폭 하락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0월 4일자



日 눈다랑어 8월 수입 가격, kg당 646엔으로 하락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 수입 영향

일본 재무부 무역 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의 8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549톤(전년도 동월 대비 24% 감소), 수입액 10억 300만 엔(35%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6,108톤(22% 증가), 수입액 147억 4,300만 엔(10% 증가), 가공품 수입량 3,945톤(15% 감소), 수입액 33억 8,200만 엔(15% 감소)이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마·내장 제거) 수입량은 4,991톤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초저온 냉동고의 공간을 기다리는 대기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관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전월인 7월 수입량은 6,025톤을 기록하였

다. 그러나 8월에는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 수입이 우선시되었다.

이에 따라 냉동 눈다랑어 재고 과잉은 해소되지 않았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의 가격 평균은 kg당 646엔(12% 하락)으로, 다시 600엔대를 기록하였다.

양식 참다랑어 필렛은 2024년 시즌(2023년 11월~2024년 8월) 수입량 누계가 2만 5,503톤으로, 2023년도 대비 20% 증가하였다. 평균 단가는 2,134엔으로, 2023년 동기 대비 43% 하락하였다. 다만 올해 8월 단가는 2,286엔으로 7월 2,020엔 대비 상승했다. 이는 연말 판매 경쟁을 대비한 재고 확보의 영향으로 관측된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0월 4일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30유로

전월 대비 약 1.4% 하락

Atuna에 따르면 9월 세이셸 가다랑어 어획량은 좋지 못하다. 북부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나은 편이지만 어획물의 크기가 작았고(1.8kg 미만) 질이 좋지 못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가공업체와 선주들은 전월 대비 1.4% 하락한 톤당 1,430유로(약 1,594달러)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도양 가공업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장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세이셸에 위치한 IOT 가

공 공장이 생산을 주 4회로 감축하였다고 말하였으나,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모리셔스의 Princes Tuna의 생산과 관련된 추 가적인 소식 또한 없었다. Prince 브랜드는 태평양 가다랑어를 사용하여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는 제3자 시설로 생산을 확장하였다.

세이셸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300유로(2,568달러)로, 전월 가격 대비 약 50유로 하락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0월 1일자



日 냉동 참치류 8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475톤 수입

< 2024년 8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날개 다랑 어	한국	25	6	34	4	77	23	214	179
	대만	330	12	490	458	637	148	711	426
	바누아투	-	-	121	740	333	104	23	4
	기타	109	299	572	235	59	349	367	225
	소계	464	317	1,218	1,437	1,106	623	1,315	834
황다 랑어	한국	261	148	76	265	239	29	249	851
	중국	425	472	624	375	106	394	437	511
	대만	7,98	970	1,118	1,742	1,172	891	1,259	1,070
	필리핀	-	-	49	-	-	49	49	27
	인니	-	-	-	-	-	-	1	-
	미국	-	-	-	-	-	-	-	-
	바누아투	36	26	212	152	139	211	144	207
	피지	-	-	13	-	-	-	-	-
	카리비시	-	-	-	27	-	17	-	-
	마셜제도	-	-	45	-	-	-	-	-
	기타	1,359	630	289	1,658	954	397	1,211	1,214
소계	2,869	2,245	2,426	4,220	2,610	1,989	3,351	3,880	
눈다 랑어	한국	259	225	297	126	484	118	297	475
	중국	202	755	808	980	385	582	796	1,126
	대만	1,928	1,438	2,319	2,508	1,894	1,707	3,255	2,323
	필리핀	-	-	-	0	-	-	-	-
	인니	-	-	-	-	-	-	-	-
	세이셸	470	461	119	693	389	338	1,421	855
	바누아투	52	17	378	442	259	665	177	152
	기타	110	4	378	169	147	48	80	60
	소계	3,020	2,901	3,974	4,917	3,559	3,457	6,025	4,991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158	17	-	-	-	-	-
	대만	95	143	1	6	3	-	-	-
	호주	-	-	19	-	-	-	200	1,429
	소계	95	301	37	6	3	-	200	1,429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0월 4일자



2023년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 경제 여건 개선 어가 상승, 유가 하락 등 영향

2023년 중서부태평양 선망어업의 경제적 상황은 러-우 전쟁의 여파로 선박용 경유 가격이 급등하였던 2022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가다랑어 어획 가치는 24억 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에 제출된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 및 경제 상황 개요' 최신본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이 데이터는 수년 동안 과학위원회에 제출되어 왔으며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참치 상대 가격, 비용(VDS와 같은 라이선스 및 접근 허가 수수료 지불 제외), 어획률(CPUE)과 같은 요인을 평가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단일 지숫값으로 결합하며, 이 지숫값은 이전 20년간의 평균값인 100과 비교하여 표시된다.

2023년에는 모든 변수를 종합한 전체 지수가 10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수는 어가 상승, 전년 대비 연료비 하락, 어획량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2022년 지수는 약 98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선사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2012년 이후로, 중서부태평양 선망 어업 지수는 2014년을 제외하고 평균 이상을 유지하였다. 이 지수는 전체 부문에 해당하며 해당 부문에서 운항하는 개별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유리한 경제 여건은 어업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하지만, 이 지수는 선박 소유주나 연안국 등 어떤 당사자가 이러한 수익에서 이익을 얻는지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하였다.

2023년 중서부태평양의 총 선망 참치 어획량 추정치는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다. 가다랑어는 이들 선박 전체 어획량의 71%를 차지하였다. 2022년 23억 9,000만 달러에서 2023년 24억 6,000만 달러로 3%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태국 수입 가격의 8% 인상과 일본 아이즈 시장에서의 의외의 12% 상승에 힘입은 결과이다.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태국 가공업체들은 중서부태평양에서의 어획 부진으로 인하여 2023년에 거의 6개월간 톤당 1,950~2,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높은 가격은 2017년 말 이후 처음이다.

* 출처: Atuna, 2024년 9월 24일자





2025년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80% 증가

소비 기반 재건 필요

NOAA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태평양 참다랑어 어부들은 IATT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가 설정한 새로운 어획 한도 덕분에 2025~2026년에 거의 80% 더 많은 참치를 어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9월에 내려진 이 결정은 IATTC의 고무적인 자원 평가에 따른 것으로, 태평양 참다랑어 개체수가 예정보다 10년 앞서 재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수년간의 엄격한 보존 노력 끝에 미국의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어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ATTC는 9월 초 파나마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획 한도를 늘렸다.

2022년에 미국 상업 어부들은 368톤, 즉 80만 파운드가 넘는 태평양 참다랑어를 어획하였다. 어부들은 어획량으로 22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2025~26년의 2년간 어획 한도는 2023~24년의 1,017톤에서 1,822톤으로 거의 80% 증가한다. 이는 미국 어선이 더 많은 태평양 참다랑어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10년 이상 긴축 어업을 한 선장, 선원, 유통업체에 반가운 변화가 될 것이다.

“태평양 양쪽에서 엄격한 관리 조치를 취한 결과 자원이 회복되었으며, 이는 과학자들과 어업 관리자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업 업계가 지속 가능한 어획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NOAA 서부해안 관리자이자 IATTC 미국 정부 부대표인 라이언 울프(Ryan Wulff)가 말하였다.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의 재건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공일 뿐만 아니라 어업 공동체와 소비자들에게도 성공이며, 더 큰 경제적 기회와 더 많은 미국 수산물을 미국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다.”라고 Wulff는 말하였다.

수십 년에 걸친 남획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태평양 참다랑어의 자원량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태평양 전역에서 어획량을 대폭 줄이려는 국제적인 조치를 촉발하였고, 상업적으로 귀중한 어종인 참다랑어는 안정과 재건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었다.

업계의 다음 과제는 미국 내 시장을 재건하고 소비자들에게 태평양 참다랑어 개체수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고도 회유성 종으로, 서식지가 주로 동아시아에서 북미 서부 해안에 이르는 북태평양의 온대 해역에 걸쳐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동부 태평양에서 참다랑어를 어획하는 유익한 국가이다. WCPFC는 나머지 태평양 전역의 참다랑어 어장을 관리한다.

IATTC와 WCPFC는 7개 국가로 구성된 다랑어 및 다랑어 유사종 국제 과학위원회에서 생산한 과학을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참다랑어 관리 및 보존 조치를 채택한다. 이 국제적인 협력은 북태평양을 가로지르는 6,000마일에 이르는 태평양 참다랑어의 이동 패턴을 포괄한다. 참다랑어는 동해의 산란지에



서 남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바하 연안의 풍부한 먹이 서식지까지 이동한다. 또 다른 참다랑어의 일부는 산란지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해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일본과 멕시코가 참다랑어를 가장 많이 잡는다. 멕시코는 1~2년 된 참다랑어를 수확할 준비가 될 때까지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육하는 고도로 발달된 어업이 있다. 위원회는 2024년 11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서태평양에 대한 새로운 어획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황새치, 참다랑어, 기타 참치 등 회유성이 높은 대형 어종은 효과적인 어업 관리와 국제 협력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자 정서와 국내 시장은 여전히 이러한 성공에 적응하고 있다.

“어부들은 가공업체, 레스토랑 및 기타 고객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NOAA 수산물 전략 고문인 마이클 루비노는 말하였다. “환경을 생각하는 참다랑어의 개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 기반 재건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어획 한도 증가는 시장 기회를 의미하지만, 늘어난 어획량을 어획하고 처리하기 위해 인프라를 유지와 재건해야 한다.”

NOAA의 국가 수산물 전략에는 어업과 지역사회 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전략은 기후 변화,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혼란, 국제 무역, 어선, 가공 공장 및 기타 미국 수산물 인프라 현대화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한다.

* 출처: National Fisherman, 2024년 10월 9일

24년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40만 톤

2023년 총어획량 넘어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40만 1,392톤이다. 이는 2023년 가다랑어 총어획량인 38만 9,781톤(폐기물 1,317톤 포함)보다도 1만 1,611톤이나 많은 수치이다.

올해 데이터에 따르면, 선망선단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2월부터 이미 매우 많은 수준이었다. 6월 말까지 가다랑어의 누계 어획량은 34만 9,318톤이었다. 이는 2023년도 같은 기간 어획량(19만 1,691톤) 대비 82%나 증가한 수치이다. 선망선단은 7월에도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40만 톤을 넘어섰다.

IATTC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동부태평양 참치어업' 관련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2024년 월별

및 누계 가다랑어 어획량이 지난 13년간의 수치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며, FAD에서 특히 증가하였음이 나타났다. 황다랑어의 어획량은 이전과 대체로 비슷했지만, 눈다랑어 어획량은 매우 적었다.

IATTC는 동부태평양에서의 가다랑어, 황다랑어 자원이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동부태평양의 거의 모든 선단이 2023년 대비 가다랑어 어획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분기에 좋은 출발을 보인 에콰도르 선단의 1월부터 7월까지의 가다랑어 어획량 누계는 22만 4,562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8만 4,994톤 증가하였다. 파나마 국적 및 '기타'로 분류된 선박들은 전년 대비 약 2배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9월 12일



중국, 세계 3위 참치 수출국으로 등극

50여 개 회사에서 500여 척의 조업선으로 40여만 톤 어획

2024년 8월 29일 상하이에서 국제 참치 산업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은 냉동식품 협회, 중국 원양어업 협회, 상하이 국제수산물박람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업계 리더, 권위 있는 전문가 등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글로벌 참치 산업의 새로운 발전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의 가장 포괄적인 산업 발전 역학 및 새로운 무역 과제를 논의하였다.

상하이 해양대학교의 쉬리우시용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참치산업의 현황과 지속 가능한 개발 과제"라는 제목으로 2023년 중국의 총 참치 어획량이 39만 5,000톤에 달하고, 49개의 어업 회사와 총 486척의 어선이 조업에 참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조업선 수는 498~511척이었으며, 여기에는 14~16척의 선망 어선과 483~495척의 연승 어선을 포함한다. 업계는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주요 어려움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노동력 확보, 국제 시장 수요 부진, 연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 비용 상승 등이 있다.

해양관리협의회(MSC)의 글로벌 참치 프로젝트 책임자인 빌 홀든은 "글로벌 참치 산업의 현황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그는 현재 중국이 태국과 에콰도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참치 제품 수출국이라고 소개하였다. 2022년

전 세계 참치 제품 수출 시장에서 중국은 7%, 태국은 29%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에콰도르는 15%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였다. 홀든은 태국과 스페인이 중국 참치 수출의 주요 시장이며, 이중 태국에 25%, 스페인에 17%가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통조림 산업 협회 회장인 리우 유권은 "국내외 참치 통조림 시장 발전: 시대에 발맞추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리우는 연설에서 중국 참치 통조림 산업의 주요 발전을 강조하였다. 2015년 시장 가치는 5억 7,700만 위안(약 7,110만 달러)으로 2019년 5억 6,500만 위안에 달했을 때까지 빠른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세가 둔화하여 2019년 이후 시장 규모가 5,800만 위안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재 시장 규모는 약 6억 2,300만 위안(8,700만 달러)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리우는 특히 건강 의식의 증가에 힘입어 참치 통조림이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정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대도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였다. 그는 내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출 부문의 상당한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출처: 해외수산협력센터 월간동향(9월), 2024년 9월 30일



퓨 자선신탁, 전재의 경제적 효과 및 가치 분석

RFMO 관리종의 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상업용 참치 어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어업 중 하나로,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연안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선에서 운반선 등으로 수산물을 옮기는 전재는 수산물을 가공 공장 및 시장으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연구 부족으로 인해 전재의 전 세계적 규모와 가치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특히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가 부족한 해양 지역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불법 제품의 시장 유입, 기타 초국가적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재 사업을 조명하기 위해 퓨 자선신탁은 포세이돈社(Poseidon Aquatic Resource Management Ltd.)에 업계 최초의 종합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산업 데이터를 조사하여 세계 5개 참치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가 전재하는 어류의 양과 해당 기간 동안 전재된 참치 어종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 데이터는 전재가 전 세계 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세이돈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팬데믹 이전 해인 2018년에 RFMO가 관리하는 선단에서 약 140만 톤의 참치를 전재했으며, 최종 판매 시점에서 미화 104억 달러의 가치와 약 20만 톤의 다른 어종을 전재했다고 추산한다.

참치 RFMO는 상업용 참치뿐만 아니라 가다랑어,

상어, 기타 어종의 전재를 상당 부분 감독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가다랑어와 황다랑어가 가장 많이 전재된 참치 어종으로, 참치 RFMO에 보고된 전체 전재 어획량의 약 75%(120만 톤 이상)를 차지하였다. 참치 선단은 참치 RFMO가 관리하지 않는 일부 어종도 전재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인도양 연승어선이 주로 어획하는 8,000톤 이상의 다랑어 어획량이 전재되었다.

태평양은 참치 및 참치 유사 어종 전재의 대부분(전 세계 전체의 69%)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대부분의 전재 활동은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WCPFC와 미주 열대 참치 위원회(IATTC)가 지리적으로 겹치는 지역에서도 이루어진다.

태평양의 참치 어획량과 태평양의 규모는 이 지역에서 전재되는 어류의 양이 많다는 것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전재는 항구에서 운반선과 선망선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은 주로 캔에 담기는 참치를 어획하며 2018년 전체 전재 어획량의 84%를 차지하였다. 연승선은 주로 해상에서 전재하기 때문에 눈다랑어와 같은 고가의 신선한 어획물이 가능한 한 빨리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

많은 수산물이 전재되지만, 고부가가치 참치 6종이 전 세계 참치 선단의 전재를 주도하고 있다. 2018년에 이들 어종의 전재량은 140만 톤 이상으



로 한 해 전체 참치 어획량의 약 27%를 차지하며, 대부분 항구에서 전채되었다.

2018년에는 90억 달러 이상의 열대 참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를 전채하였다. 이 중 선망어선이 주로 어획하는 가다랑어와 황다랑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로 연승으로 어획되는 빈도는 적지만 고급 초밥과 횡감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는 눈다랑어 역시 전 세계 전채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선망어선이 어획한 참치가 전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주로 눈다랑어,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연승어선이 잡은 참치의 톤당 가치가 가장 높는데, 이는 소비자가 참치 초밥, 횡감, 로인에 지불하는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어종은 어부들이 가능한 한 빨리 수산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해상 전채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전채는 수산물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참치 어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년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27%(미화 104억 달러 상당) 이상이 전채된다. 많은 RFMO가 이미 전채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보고, 모니터링, 정보 공유를 포함하는 유엔 식량농업 기구(FAO)의 자발적 전채 지침을 더 폭넓게 채택하면 보다 포괄적인 감독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전채가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도록 어업 관리자와 정부 관계자는 지침을 이행하고 3가지 주요 영역에서 개별 감독을 개선해야 한다:

1. 보고; 어선 및 운반선은 적시에 전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RFMO를 포함한 당국이 어획량 정

보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대상 어종에 대한 정보 외에도 보유 및 전채된 비대상 어종의 양과 종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데이터 공유; RFMO와 국가는 효과적인 전채 데이터 공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중복되거나 인접한 RFMO는 공유 구역에서의 교차 등록 선박 및 전채 활동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계약의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3. 모니터링; 어업 관리자는 발생하는 장소와 관계 없이 모든 전채에 대해 어선과 운반선 모두에 옵서버 또는 전자 옵서버(또는 이 둘을 조합)를 100% 배치해야 한다. 이는 관련 RFMO의 인증을 받은 국가 또는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에서 충분한 인력과 교육을 받고 면허를 받은 개인으로 어업 운영의 접근성을 높여 달성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RFMO 관리 전채는 서태평양 수역과 항구에서 발생하므로, 특히 WCPFC는 새로운 규정으로 전채 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강력한 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해상에서든 항구에서든 전채는 전 세계 참치 어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고가 참치의 거의 1/3이 전채되기 때문에 불법 수산물이 글로벌 공급망에 유입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과 항만 검사가 필수적이다. 정부 및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국가와 RFMO는 모든 어획물의 전채가 합법적이고 검증 가능한지 확인하고, 불법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을 줄이며, 건강하고 투명한 해양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 출처: Pew, 2024년 9월 18일



PNA FAD 어업 MSC 인증, 5년 재인증 인증 관련 이의 기각

긴 분쟁 끝에 세계 최대의 선망 참치 어업인 PNA 어업이 해양관리협회의(이하, MSC) 지속가능성 인증을 5년 연장하였다. 지난주 MSC의 독립심사기관(이하, IA)은 어업에 대한 이의를 기각하였다. PNA 사무국은 이번 재인증이 "PNA 회원국 수역에서의 참치 어업을 위하여 마련된 자원의 건강한 상태 및 선망어업 선박일수제도(이하, VDS)와 같은 관리 조치의 효력을 증명한다."라고 말하며 이 결정을 환영하였다.

월요일에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PNA 수역에서 매년 약 130만 톤이 어획되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업 재인증을 받았다.

PNA MSC 인증은 FCF, Tri Marine 등 다른

FAD 어업 인증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구역이 포함된다. 다만 PNA의 인증은 PNA 회원국 수역에 국한되지만, 다른 인증은 공해 구역을 포함한다.

PNA 어업 재인증에 대한 재심사는 2023년에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비상군(free school) 조업 및 FAD 조업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해당 평가를 맡은 적합성평가기관(이하, CAB)의 최종 초안 보고서는 올해 1월 12일에 발표되었으나, 투명참치 어업연맹(이하, CTTF)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3월까지 모든 당사자가 MSC 분쟁 절차에 돌입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9월 13일

EU-기니비사우 어업 협정 5년 연장 기니비사우 수역에서 참치 선망, 연승 등 어업

EU와 기니비사우는 9월 18일 어업 파트너십 협정을 갱신하였다. 이 협정에 근거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의 선망선, 연승선, 대납시 어선이 향후 5년 동안 대서양의 참치가 풍부한 기니비사우 EEZ에서 어업할 수 있게 된다.

EU는 기니비사우에 매년 1,700만 유로, 5년간 8,500만 유로를 지불할 예정이다. 이 중 450만 유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통제 및 감시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 어촌 커뮤니티를 장려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선주는 추가 면허 및 어획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2021년의 '지속가능어업협력' 협정 문서에 따르면, 선망선의 수수료는 톤당 70유로이고, 연승선과 대납시선의 경우 각각 톤당 55유로이다. EU 집행위 측은 수수료의 변동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EU의 기부금 및 EU 어업자 측이 지급한 수수료를 합치면 5년 동안 총추정 범위가 1억 유로를 넘어선다."라고 밝혔다.

* 출처: Atuna, 2024년 9월 12일



페루 자원부 “대왕오징어 자원 부족, 기후 원인”

페루 어업계, 中 선단 책임 주장

페루 정부는 생산부를 통하여 현재 자국 수역에서 대왕오징어(홍볼트오징어)가 부족한 것은 중국 선단의 불법 어업 때문이라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대신, 생산부는 원인을 기후 조건, 특히 엘니노 현상의 영향으로 지목하였다.

영세 어업자들은 외국 선단, 특히 중국 선단이 위성 추적 시스템을 비활성화하여 페루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영세 어업자들은 이러한 불법 조업으로 인하여 오징어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페루인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오징어의 현지 시장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는 이미 수백만 명의 국민이 저렴한 식량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루에서의 식량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Undercurrent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대왕오징어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한 페루 가공업체 임원에 따르면, 현 상황은 페루 공영 방송의 뉴스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매우 적은 양의 오징어만이 들어오고 있으며, 가격은 대단히 비싸다. 원료가 매우 적고 비싸므로 아무도 가공하지 못하고 있다. kg당 5~6달러 사이에 가격이 책정

되었기 때문에, 페루 국민 소비를 위하여 지역 시장에만 반입되고 있다. 24일자 가격은 kg당 6.40달러를 기록하였다.”라고 페루 가공업체 Perupez 총괄 부장 다리오 알비테스(Dario Alvites)가 말하였다.

알비테스 부장에 따르면 해양연구소 IMARPE는 4년 동안 연구 순항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 규모 구성 또는 성적 성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암흑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알비테스 부장은 또한 중국 선단이 일반적으로 작은 개체를 어획하는데, 이 개체들은 아직 번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동시에 기후 요인으로 인하여 오징어의 먹이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어 어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부 대변인은 조사 결과 외국 선박이 EEZ 내에서 조업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대변인은 오징어 어획량 감소가 환경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생산부에 따르면 해양 환경이 안정됨에 따라 12월까지 어획량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어업자들은 어획 어종을 다양화하고 10월에 어기가 시작되는 만 새기와 같은 다른 종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페루 산업협회(이하, SNI)의 전국산업어업협회 및 양식위원회는 회의적



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Undercurrent에 보낸 보도 자료에서 그들은 외국 선박에 위성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기존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였다.

SNI 어업 및 양식 위원회 위원장인 알폰소 미란다가 따르면, 당국의 일각에서 페루에 입항하는 외국 오징어잡이 어선은 불법 어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장인 어업자는 외국 선박의 페루 영해 내 조업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란다는 장인 어업이 "지난 30년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통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연말 전에 어업계의 실업과 마비가 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SNI 위원회는 엘니노 현상이 멀치, 고등어, 가다랑어 등 다른 해양 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오징어 자원 부족에 미친 영향의 수준에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장인 어업 부문의 좌절을 인정하며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어부들은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 강화와 오징어 개체 수 모니터링을 위한 해양 조사 탐험 재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연구가 부족하여 오징어의 가용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파이타어선선주협회(Paita Fishing Vessel Owners Association, APAMARPA)'의 에드윈 하우튼(Edwin Houghton) 회장을 비롯한 어업 산업 리더들은 이 위기의 원인이 중국 어선단의 감시 없는 조업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우라의 지역 정부와 소규모 어업 단체는 중앙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페루 대통령에게 페루 전역의 소규모 어업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 반대의사를 다시 표명하였다. 이들은 불법 어업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세르히오 곤살레스 게레로 생산부 장관 등 여러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페루 국립장인어업협회(SONAPESCAL)의 엘사 베가(Elsa Vega) 회장은 최근 수년간 3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페루 수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선박들이 생산부의 위성추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부족하였다.

베가 회장은 "곤살레스 장관이 규제를 제대로 시행할 때까지 중국 어선의 추가 진입을 거부한다"라고 선언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고와 함께 끝났다. "장관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요 항구에서 광범위한 파업이 발생할 것이다. 곤살레스 장관은 이전에 불법 어업 대응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어업 대표들에 따르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곤살레스 장관은 침묵하였다. 그가 생산부를 제대로 지휘할 수 없다면 물러나야 한다."라며 하우튼 회장은 어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9월 19일, 9월 25일



페루 대왕오징어 부족으로 가격 급등

9월 초 이후 페루산 오징어 도매가격 10% 이상 상승

페루 대왕오징어(홍볼트오징어) 어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오징어 가격이 급등하고, 페루의 가공 공장이 타격을 받았으며, 페루 EEZ 외부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단도 영향을 받았다.

현재 페루 국내 시장에서의 냉동 오징어 가격은 kg당 20페루솔(약 5.40달러)로, 일부에서는 최고 22페루솔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페루 수산물 수출 회사의 임원은 "자원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그나마 남은 자원도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소비자들에게 있어 구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위기는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그중 하나는 기후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 선박의 제재 없는 불법 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자원 고갈이다.

위의 임원은 "그들(중국 어업자들)이 오징어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우리가 오징어를 들여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지역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강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페루 수역에서 오징어가 부족한 이유가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때문이라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정부는 대신 위기의 원인을 기후 조건, 특히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돌렸다.

최근 몇 주 동안 오징어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고, 많은 판매자가 "사람들이 오징어

를 거의 사지 않게 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회사는 오징어를 다른 저렴한 생선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업계 소식통은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의 상업화에 초점을 맞췄던 회사들이 그렇다. 이런 시기에는 다각화 아니면 도산, 둘 중 하나이다. 이런 위기를 감당할 정도로 빠르게 다각화하지 못하는 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페루 가공업체 Perupez의 총괄부장 다리오 알비테스(Dario Alvites)에 따르면, 오징어 부족으로 인해 가공업체는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부장에 따르면, 페루 어업자들이 잡은 오징어는 이제 페루 현지 시장으로만 이동한다.

페루 생산부는 엘니뇨와 같은 기후 조건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페루 어업계는 외국 선단, 특히 중국 선단의 "불법 어업 관행"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중국 선박은 현재 페루 남부에서 오징어를 조업 중이라고 중국 수산물 업계 소식통이 말하였다. "그곳에는 중국 선박이 많지 않고 어획량도 미미하며, 각 선박의 일일 어획량은 수 톤에 불과하다."라고 중국 냉동 수산물 무역 회사 임원이 말하였다.

해당 임원은 첫 번째 중국 선박이 9월 셋째 주 토, 일요일이 되어서야 도착했다고 말하였다. 중국의 국경일 휴일인 10월 초까지 더 많은 중국 선박이 도착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임원은 지금은 생산량을 말하기 어려우나, 페루 어획량이 곧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중국 저우산 수산물 가공업체 측은 "중국에서 오징어가 부족하고 가격이 급등한다는 소식이 페루에도 전해지면서 페루 어업자와 중국 어업자 모두 오징어를 잡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고갈된 자원에 좋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소식통은 페루의 작년 오징어 어획량이 50만 톤이 나 되는 기록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올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중국에서의 오징어 어획량 공식 데이터가 실제 물량에 비하여 과소 집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원양 어업 선단은 연간 약 200만 톤의 어획물을 잡으며, 오징어는 1/3을 차지하지만, 실제 어획량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작년에 페루산 오징어를 15만 톤 이상 수입하였다. 그러나 2024년 페루산 오징어 수입량은 첫 8개월 동안 총 1만 9,329톤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 대비 87% 감소한 수치이다.

올해 수입이 가장 많았던 달은 8월로, 페루에서 9,634톤의 수입이 기록되었다.

2023년에 페루는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중국 최대 오징어 공급국이 되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9월 27일

페루 오징어 어획량, 전년 대비 약 70% 감소

빨강오징어, 일렉스오징어 등 中 가격 상승세

무역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에서의 6월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홍볼트오징어) 어획량은 4만 522톤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1미당 2kg 전후의 소형이 중심으로, 어장이 멀어지고 신선도도 하락하였다. 2024년 상반기(1~6월) 어획량 누계는 전년 대비 74% 감소한 11만 6,414톤이다. 칠레는 악천후로 인하여 출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선단이 적도상에서 조업하는 소형 빨강오징어(무라사키 오징어, 적도오징어)의 8월 하순 시점 중국 가격은 1미당 500g 이하가 톤당 1만 8,400~1만 8,800위안, 500g~1kg이 1만 8,000위안~1만 8,500위안, 1~2kg이 1만 4,800위

안~1만 5,200위안, 2~4kg이 1만 4,800위안~1만 5,200위안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상사 소식통에 따르면 1~2kg과 2~4kg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남미에서의 대왕오징어 양륙량은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빨강오징어 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다.

중국에서는 살오징어 조업이 새로 시작되었으나, 어획량은 좋지 못하다. 중국 선단이 아르헨티나에서 조업하는 일렉스 오징어 어업이 좋지 못한 가운데, 중국에서의 살오징어 원료 대체재인 일렉스 오징어 가격은 상승세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9월 16일



스페인, 오징어 조업 금지로 1억 유로 손실 직면

조업 준비 등 선단 유지 비용과 대체 조업 기회도 없어

포클랜드의 두 번째 로리고 오징어 조업 시즌이 갑작스럽게 중단됨에 따라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스페인 어선들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는 선단에는 스페인 북부의 비고와 포클랜드에 있는 기업 간의 합작 투자에 소속된 17척의 선박이 포함된다.

스페인 어선 선주 조합장은 대체 조업 기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많은 선박이 매물 비용과 해고 가능성 등 재정적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두 번째 시즌에는 4만 톤 이상의 오징어가 생산되었을 것이며, 이는 1억 유로 (1억 1,130만 달러) 이상의 수익으로 환산된다.”

포클랜드 제도 정부는 과학적 권고에 따라 오징어 개체군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업 전 광범위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개체군의 최소 생물학적 자원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 같은 결정이 났다.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첫 어기 동안 스페인 선박들은 약 4만 5,000톤의 오징어를 어획하였지만, 두 번째 어기에는 1만 5,000톤의 어획하며 개체수 감소로 조업이 중단되었다. 올해는 첫 어기에 5만 톤 이상의 어획

량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지만, 어족 자원 부족으로 인해 두 번째 시즌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였다.

주로 스페인에서 운영되는 이 모든 스페인 어업 회사들은 위에서 언급한 합작 투자를 통하여 현재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상당한 수익을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단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선박이 이번 어기를 준비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어기가 종료되면서 이러한 비용만 지출하고 수입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스페인 업체는 헤이크와 같은 대체 어업으로 초점을 전환하거나 다른 수역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어종으로 조업하여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에서 시장 가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업 중단은 전 세계 오징어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오징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손실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 출처: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관 10월 보고 수정.

2024년 10월 7일



스페인 선사, 포클랜드에 새 냉동 트롤선 도입 약 85m, 2,500톤 규모

스페인 페스카푸에르타 그룹 산하의 선사인 페트렐 (Petrel)은 포클랜드제도에서 조업 예정인 신규 냉동 트롤선 프리온(Prion) 호를 도입하였다.

해당 선박은 선장 85m, 폭 14m, 수용량 2,500톤으로 최근 수년간 건조된 선박 중 최대 규모이며 가장 발전한 냉동 트롤선이다.

또한 생분해성 폐기물 보관 탱크, 쓰레기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허가된 소각로, 바닷새를 보호할 수 있는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주 엔진과 보조 엔진 모두 까다로운 배기가스 제어 규정을 준수하여 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9월 27일에 열린 진수식은 갈리시아 지방 정부 수반인 알폰소 루에다가 주재하였다. 페스카푸에르타의 호세 푸에르타 회장은 이 선박의 최첨단 기술과 선원 선내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푸에르타는 "프리온 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갈리시아 조선소에서 건조된 냉동 트롤선 중 가장 진보된 트롤선이다."라고 말하였다.

프리온 호의 인도는 3년 전 페스카푸에르타와 포

르투나가 "팔콘"의 건조와 함께 시작한 현재 진행 중인 선단 개선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자회사 로리고씨푸드(Loligo Seafood)를 통하여 포클랜드에서 로리고 오징어를 어획하는 페스카푸에르타는 현재 자원 상황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였다.

포클랜드 로리고 오징어 어기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스페인 어선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회사는 침묵을 지켰다.

소식통에 따르면 프리온 호로 대체되는 페스카푸에르타의 '벤처러(Venturer)' 호가 약 한 달 후 포클랜드에서 스페인 북부의 비고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 회사는 벤처러 호를 약 350만 유로(390만 달러)에 매각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식통은 이에 대한 답변 또한 거부한 페스카푸에르타가 아직 선박 구매자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0월 1일





알래스카 명태 어장 폐쇄, 악영향 예상

연어 혼획 어획량 초과로 조업 중단

세계 시장에서 상당량의 명태가 사라지는 것 외에도 조업선과 지역사회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알래스카의 주요 명태 어획 구역이 폐쇄되면 수만 톤의 명태가 어획되지 않아 지역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지역의 선박과 가공업체를 대표하는 협회가 밝혔다.

미국 연방 어업 관리를 감독하는 기관인 국립해양수산청(NMFS)은 왕연어 혼획 한도에 도달한 후 알래스카 중부 만에서 알래스카 명태 트롤 어업을 중단하였다.

수요일 아침 공지를 통하여 NMFS는 12월 31일 까지 모든 명태 트롤 어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규정에 따라 사전 설정된 연어 혼획 수준에 도달하면 조업이 중단될 수 있다.

목요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알래스카 연안 트롤 어선과 가공업자들의 모임인 알래스카 연근해 어류 데이터 은행(AGDB)은 9월 22일 명태를 잡는 트롤 어선 두 척이 조업 중 “전례 없는 양의” 왕연어가 어획

되면서 왕연어 혼획 제한이 발동되었다. 두 선박에서 약 2,000마리의 왕연어가 어획되어 알래스카만 중부 명태 어업의 왕연어 어획량이 1만 8,316마리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AGDB는 성명에서 왕연어가 대량으로 어획되어 선박들이 즉시 조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의 옵서버는 혼획 정보를 AGDB와 NMFS에 보고하였고, 당시 명태를 잡던 모든 선박이 왕연어 한도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조업을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 알래스카만에서는 올해 명태 총허용어획량(TAC)이 25% 증가한 19만 5,720톤에 달하였다.

AGDB는 명태 할당량 중 약 5만 톤이 어획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알래스카만 명태 어업에는 약 50척의 트롤 어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조업 중단으로 알래스카 코디액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9월 27일





러 조선소, RFC 명태 트롤선 건조 투자 프로그램으로 발주한 10척 중 5번째 선박

러시아 어업 회사(RFC)의 새로운 슈퍼 트롤 어선이 지난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수되었다. 이 선박은 어업 쿼터 대가로 8억 7,500만 달러의 투자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 업체가 발주한 10척의 선단 중 다섯 번째 선박이다.

카피탄 유낙호는 러시아 제7차 글로벌 수산 포럼의 행사 중 하나로 부총리,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 연방 수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해군 조선소에서 진수됐다고 RFC는 밝혔다.

2017년에 시작된 정부 지원 선단 갱신 프로그램에 따라 RFC는 명태와 태평양 청어 쿼터를 받는 대가로 러시아 국내 조선소에서 10척의 신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800억 루블(8억 7,570만 달러)을 투자하고 있다. 이미 건조된 4척은 이미 러시아 극동 수역에서 조업 중이다.

각 트롤 어선은 연간 6만 톤의 어류를 어획하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러시아 어선의 생산성을 두 배 이상 향상한다.

베링해와 오호츠크해에서 명태와 태평양 청어를 잡기 위해 설계된 108m 길이의 카피탄 유낙호는 필레와 연육, 명란, 어분, 어유 등 다양한 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추고 있다.

이 트롤선의 냉동 화물 적재 용량은 2,375m³이며

하루에 최대 100톤의 제품을 냉동할 수 있다. 어창의 용량은 5,620m³라고 RFC는 밝혔다.

이 선박의 생산 능력은 하루에 80톤의 필레 또는 민스와 최대 40톤의 어분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선박은 내년에 RFC에 인도될 예정이다.

투자 쿼터 할당 프로그램의 1단계에 따라 러연방 수산청은 2024년까지 105척의 신규 선박을 건조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들이 촉박한 기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업 회사들은 큰 지연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은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선 산업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더욱 악화하였다.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당초 수주한 105척의 선박 중 어선 16척과 계잡이 선박 11척 등 27척만이 고객에게 인도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 정부는 건조 완공 시기를 2030년으로 6년 연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연방수산청은 국가 투자 할당 프로그램의 2단계에 착수하였으며 작년에 실시한 입찰에 따라 15척의 어선과 최대 31척의 계잡이 배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연방수산청장은 카피탄 유낙호의 진수식에서 “프로그램의 2단계가 완료되면 가장 현대적인 선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9월 25일



러, 어획량 400만 톤 육박 극동 수역에서 290만 톤 이상 어획

러시아 FMC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까지 러시아 수생생물자원 어획량은 387만 톤을 기록하였다.

극동수역에서 290만 톤 이상을 어획하였다. 이중 명태 170만 톤, 대구 9만 2,400톤, 청어 32만 9,300톤(지난해 대비 4만 7,600톤 증가), 가자미 5만 4,800톤을 어획하였다.

북부수역에서 36만 7,200톤을 어획하였다. 이중 대구 19만 1,200톤, 해덕 4만 6,000톤, 열빙어 5만 1,700톤(지난해 대비 2만 8,600톤 증가)이다.

서부수역에서 5만 6,100톤을 어획하였다. 이중 유럽청어 3만 500톤, 발트해 청어는 1만 8,800톤을 어획하였다.

아조프-흑해 수역에서 2만 5,100톤을 어획하였다. 이중 멸치는 9,200톤으로 지난해 대비 700톤

더 많이 어획하였다.

볼가-카스피 수역에서 5만 2,600톤을 어획하였다. 이중 카스피해 청어는 2만 700톤을 어획하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에서 러시아 조업선은 총 38만 5,300톤 이상을 어획하였다. 이중 외국 배타적 수역에서 21만 4천 톤(지난해 대비 16.2% 증가)을 어획하였다.

9월 30일 현재 연해주에 있는 수산물 냉장창고의 총적재량은 50%이다. 수산 터미널에는 5만 7,568톤의 신선 냉동 수산물이 있다. 연해주 항구에는 2만 5,071톤의 수산물을 적재한 33척의 선박이 접근하고 있다. 이 중 연어를 실은 선박은 7척으로 물량은 1만 117톤이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10월 1일

벨라루스 명태 조업 회사, 파트너 변경 예정 합의에 따라 벨라루스 국적 회사만 조업 가능

명태 쿼터를 소유한 러시아-벨라루스 합작 투자의 절반이 러시아에서 매각 예정이다.

러연방 반독점청은 Soyuznye Rybye Promysly LLC의 지분 50% 매각을 승인하였다. 러시아 언론은 이 회사는 억만장자 Arkady Rotenberg와 연관된 Izumrud LLC가 인수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정확히 누구의 지분이 매각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코메르산트” 소식통에 따르면 벨라루스지분에 관한 것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합

의에 따라 벨라루스 국적의 회사만 쿼터 내에서 조업이 가능하다.

벨라루스 측의 지분은 “Morskije Promysly”社와 “Lyudmila Neronskaya”社가 지분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

“Soyuznye Rybye Promysly LLC”는 2022년에 등록되었다. 러연방수산청의 명령에 따라 이 회사는 2024년에 6만 2,000톤이 조금 넘는 쿼터를 할당받았으며, 이 중 5만 톤이 명태이다.

* 출처: Office Life, 2024년 9월 28일



2024년 상반기 전세계 연육 생산량, 약 11% 감소 약 38만 4,000톤 생산

올해 상반기 전세계 연육 생산량은 여러 종과 지역에 따라 엇갈린 추세를 보였다. 2024년 상반기 전세계 연육 생산량은 38만 3,623톤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10.5% 감소하였다.

식량 부문 관련 시장조사기관인 Expana의 앙헬 루비오가 지난 9월 26일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 협회(이하, GAPP)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적인 생산량의 감소는 명태, 실꼬리돔, 투라치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

알래스카 명태 연육 생산량은 2023년에 21% 증가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7% 감소한 8만 8,873톤을 기록하였다. 알래스카 명태는 상반기 동안 전체 연육 생산량의 23.2%를 차지하며, 세계 연육 시장의 선두 주자 자리를 지켰다.

루비오는 알래스카의 명태 생산량 누계치가 37주 차까지 거의 변동이 없는 16만 2,700톤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상반기 러시아 극동에서의 명태 연육 생산량은 34% 감소한 1만 9,545톤에 그쳤다.

그러나 러시아 RFC의 사벨리 카르푸힌 CEO는 연간 최종 생산량이 올해 베링해에서의 어업 조건이

좋지 못하여 기존 예측치인 8만 톤보다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상반기 일본 홋카이도에서의 명태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1만 4,417톤을 기록하였다.

한편, 주로 미국 서부 연안에서 어획되는, 태평양 헤이크(hake)로도 불리는 태평양 민대구 연육 생산량은 62% 감소한 4,692톤을 기록하였다. 공식 집계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루비오는 2024년 생산량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새꼬리민태와 남방청대구 연육 생산량 또한 각각 2,460톤과 1,103톤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하였다.

전세계 연육 생산량의 52%를 차지하는 열대어 연육 생산은 어려운 한 해를 맞았으며, 특히 중국 이외 국가에서 그러한 추세가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열대어 연육 생산량은 13% 감소한 20만 2,333톤을 기록하였다. 주요 생산국인 인도와 베트남 등지에서의 생산량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0월 1일



日 알래스카 명태 연육 2024년 B시즌 가격 상승 2회 연속 가격 상승

알래스카 명태 생산업체와 일본 구매자는 2024년 B시즌 연육 가격에 합의하였다. B시즌 연육 가격은 모든 등급을 통틀어 A시즌 대비 kg당 60엔(약 0.4달러) 상승한 가격에 합의되었다.

연육 가격은 2023년에 가격이 두드러지게 하락한 이후 2개 시즌 연속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한 업체 임원에 따르면, 이러한 가격 인상도 생산 비용 급등을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합의는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타결되었다. 일본 측 구매자에 따르면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가격은 등급과 공급업체에 따라 kg당 50엔에서 70엔까지 인상된 수준이다.

2024년 B시즌 동안 1달러당 160엔 수준까지 하락한 엔화 가치가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이에 따라 알래스카 생산업체는 가격 조정을 요구하였다.

시애틀의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생산업체 측은 초기에 kg당 100엔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8월과 9월에 엔화가 1달러당 140엔대 초반까지 상승하면서 결국 kg당 60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어졌다.

2022년 A시즌에 연육 가격은 상급 kg당 50~70엔, 하급 40~50엔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3년 시즌에는 중상급이 kg당 100~120엔, 하급이 55~75엔까지 하락하는 등 급락을 겪었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것이 일본의 어육 제품 생산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라며 “키분사와 이치마사사와 같은 일본의 주요 어육 생산업체는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이미 지난 18개월 동안 5차례나 가격을 인상하였다.”라고 말하였다.

Undercurrent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올해 초부터 어육 제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내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을 100으로 한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24년 1월 연육 제품의 지수는 124.9로 집계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가장 최근 집계 월인 8월에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124.7을 기록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0월 1일



日 꽁치 어획량, 9월 말 전년 대비 90% 증가 약 1만 1,800톤

9월 말 시점 일본 꽁치 어획량 누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증가하였다. 향후 성패를 좌우하는 10월 이후 조업에서의 추가적인 어획량 증가 여부 및 러시아 수역에서의 어장 형성 동향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이하, JAFIC)에 따르면, 8월부터 9월 말까지 일본 전국에 양륙된 꽁치의 양은 전년도 동기 대비 90% 증가한 약 1만 1,800톤이다. 2022년도 동기(3,924톤)와 2021년도 동기(5,004톤)와 비교하여도 많은 편이다. 꽁치 어획량이 급감한 2019년도 이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번 어기 꽁치 봉수망 대형선(100톤 이상)이 평년 대비 10일 이른 시점부터 조업을 개시하였다는 점이나 악천후가 적었다는 점 등이 어획량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어장에서 '어획되는 방식' 또한 최근 수년간 중에서는 좋은 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사키 항구에는 연일 수백 톤 수준의 꾸준한 양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9월 25일에는 900톤 이상이 양륙되기도 하였다. 타 항구를 합치면 9월 25일 하루 동안 1,400톤이 양륙되었다. JAFIC 담당자는 "(어획량 감소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나, 올해 어기는 최근 수년간 중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어획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8~9월 평균 단가는 9% 상승한 kg당 574엔이다. 이번 어기도 어체는 큰 편이 아니지만, JAFIC 측은 "전년도보다는 크고, 지방질도 있어, 신선 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가을

연어가 부진하면서, 소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제철 선어로서의 수요가 높아졌다는 배경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어가가 상승하였다.

전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다가올 10~11월의 어획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어기 전체의 어획량이 결정된다. 10~11월의 어획량은 일반적으로 연간 어획량의 70~80%를 차지한다.

전국꽁치봉수망어업자연합회(이하, 연합)의 오오이시 전무는 "요즘 상황에서 이 정도로 어획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한편, "날에 따라 잡히기도 하고, 잡히지 않기도 하는 등 안정적이지 않다."라며, 향후 흐름의 불안 요소를 지적하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장은 일본 근해 쪽으로 그리 가까워지지 않아, 10톤 이상 20톤 미만 소형선의 조업이 어려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JAFIC에 의하면, 현재의 어장은 하나사키의 동북동 근해로, 대형선으로 2일 정도 걸리는 800~1,000km 거리의 공해이다. 10월부터는 러시아 영해 내에서의 조업도 가능해졌지만, 대부분 배는 공해에서의 조업을 계속하고 있어, 연합 측에 따르면 10월 1일 시점에 가까운 시일 내로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예정인 선박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러시아 수역에서의 어장 형성과 일본 근해로의 어군 내유 시기, 작년 어기 후반에 어획량이 많았던 오호츠크해 어장의 동향 등의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0월 4일



日 9월 10일 꽁치 어획량 누계, 전년 대비 2.5배 약 3,900톤...어장 동쪽 이동, 어체 소형화 등 관측

일본 꽁치 조업이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업은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 극동출장소(이하 출장소)에 따르면, 어기 시작부터 9월 10일까지의 어획량 누계(추정치)는 3,92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 수준이다. 최근까지 계속된 극단적인 어획량 감소 추세와는 다른 상황이다.

기존에 일본은 어선의 크기별로 꽁치 어기 시작일을 다르게 설정하였으나, 올해는 선박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이 8월 10일에 조업을 시작하였다. 어기 초반에는 비교적 일본에 가까운 공해에 어장이 형성되었다. 출장소 측은 "(어획량 증가의 원인) 대형선의 어기 시작이 앞당겨졌기 때문인지, 비교적 가까운 바다에 어군이 형성되었기 때문인지는 차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9월 13일에는 홋카이도 하나사키를 중심으로, 산리쿠(三陸,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에서 미야기현 마쓰시마까지 이어지는 해안 지역)를 포함하여 약 900톤이 양륙되면서, 이번 어기 최대의 일일 양륙량을 기록하였다. 9월에 들어서 일일 양륙량은 200~500톤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17일

에도 500톤을 넘는 양륙량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향후 불안 요소도 있다. 현재의 어장은, 홋카이도 노삿푸 곳에서 동쪽으로 약 370km, 그리고 해당 위치에서 북동쪽의 노삿푸 곳에서 약 900km 떨어진 곳 등에 분산되어 있다. 출장소 측은 "초반에 비해 동쪽으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하룻밤 동안 50톤을 양륙하는 어선이 있지만, 대부분은 수 톤에서 수십 톤에 그치는 수준으로, 어군이 풍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기 초반 17~19도의 이례적인 고수온에서 잡힌 꽁치와 달리, "통상의 적정 수온인 13~14도에서 잡히는 꽁치로 바뀌고 있다"라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어획물에서 1미당 100g 이상의 개체는 거의 보이지 않고, 90g대가 주체를 이루는 등 소형화가 관측되고 있다.

한편 산지 가격 추세는 일정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 중이다. 17일 하나사키 어시장에서의 가격은 kg당 600엔대부터 800엔대 후반대로, 어획량이 적었던 전년 동기 수준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9월 18일



생선 통조림의 원조, 콩치

중국과 대만 신조선과의 경쟁을 이겨낼 대책 마련 필요

콩치란 이름은 아가미 부근에 침을 놓은 듯 구멍이 있어 구멍 “공”자에 물고기를 뜻하는 “치”를 붙인 콩치가 된소리로 변해 콩치라고 불리게 되었다. 속담을 통해 ‘콩치는 서리가 내려야 제맛이 난다’라는 말처럼 실제로 10~11월 서리가 내릴 때 지방함량이 달라지며 가장 맛이 좋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콩치는 북태평양 찬물에 살다가 가을이 되면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다. 동해안으로 내려오는 콩치보다 태평양 연안으로 내려오는 콩치가 지방질이 많아 더 맛이 있다.

콩치는 일본인이 가장 즐겨 먹는 생선 중의 하나로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이다. 일본 막부시대 최고 권력자인 쇼군이 매사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 메구로 지역의 한 주막집에 들렀다. 예고 없는 방문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 안주인이 본인 먹으려고 마련해 놓은 콩치를 구워 제공하였다.

생애 처음으로 콩치를 먹어본 쇼군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다시 콩치를 올리라 했지만, 메구로에서 먹은 콩치 맛을 따를 수 없었다고 한다. ‘시장이 반찬’이라 워낙 공복에 먹은 음식이고 그의 부하가 건강을 염려하여 콩치를 찌고 가시를 발라내라 하여 이전의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콩치는 조리할 때 생선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양이 다른 생선보다 많다. 만약 불 조절을 잘못해서 기름이 타면 콩치 살에 쓴맛이 스며들기 때문에 콩치에 칼집을 넣어 빨리 익게 하거나 중간중간 기름을 닦아내거나 불 조절을 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석쇠로

구워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콩치는 크기에 비해 가시가 억세고 많아 가시가 무를 때까지 익히거나 튀기면 가시가 살에서 맛볼 수 없는 적절한 식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통조림 형태와 잘 어울려 참치 통조림이 나오기 전에는 생선 통조림은 대부분 콩치 통조림이었다.

콩치통조림은 콩치가 고온 고압으로 익히며 콩치의 가시와 뼈는 독특하면서도 고소한 식감을 제공한다. 콩치통조림은 참치 통조림처럼 기름, 채소 조미액이 들어가지 않고 소금(정제염)과 물(정제수)만 넣어 만들며, 참치 통조림처럼 가시 제거 공정이 필요 없기에 가격도 저렴하다.

김치찌개에 참치 통조림을 넣으면 살이 찌개 전체적으로 흩어지지만, 콩치 통조림을 넣을 때는 콩치 살이 흩어지지 않고 콩치의 기름기가 김치와 잘 어울려 김치찌개의 맛이 더욱 고소해지고 참치보다 살이 부드럽고 연하여 김치찌개 애호가는 대부분 참치보다 콩치를 넣어 끓인다.

이러한 콩치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해 256톤으로 부족한 생산량을 수입(주로 대만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물가안정과 수입 의존 해결을 위하여 원양어선이 북태평양, 러시아, 일본수역에서 조업을 하였다.

원양 콩치조업선은 오징어조업선처럼 빛으로 어군을 유인하여 어획하는 봉수망 어법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일본수역의 경우 201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입어료가 없음에도 국민 정서를 위해



일본수역 입어를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수역도 엄격한 관리와 입어로 부담, 자원 감소 등으로 최근에는 북태평양수역에서만 조업하고 있다.

원양어업을 통한 꽁치 어획은 2018년 2만 3,701톤을 어획하였으나 해마다 어획량이 감소하여 지난해 3,107톤 밖에 어획하지 못하였다. 이에 꽁치 가

격은 지속 상승하여 과메기는 더 이상 꽁치로 생산하기 어려워졌으며, 조업선도 절반 이상(5척 이하)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2백여 척의 중국과 대만 신조 조업선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출처: 바다와 60여 년 수정 및 보완, 2024년 9월 27일

해수 온도 상승, 꽁치 어획량 영향

꽁치 조업 첫 시기는 좋았지만, 전망은 어두워

올해 꽁치 조업 조업은 예년보다 이른 공해상 대형선박 조업 시작으로 시작이 순조로웠다. 8월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문연구기관에서는 수온의 영향으로 이번 어기 전체 어획량은 지난해만큼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 수산정보서비스센터에 따르면 8월 전국 꽁치 어획량은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총 2,611톤으로 지난해 8월 어획량의 4.5배에 달하였다.

높은 어획량의 배경에는 대형 선박의 조업이 평년보다 10일 정도 일찍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일본 전국 꽁치붕수망협동조합이 공해상까지 먼 바다로 나가는 대형선박의 조업을 먼저 시작한 뒤 소형과 중형선박을 함께 조업하는 방식으로 조업시기를 앞당겼다.

8월에는 공해의 어장이 평소보다 가까운 곳으로, 즉 홋카이도 동해안에서 약 800~900km 떨어진 곳에 형성되었다. 따라서 해안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항구와 어장 사이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어 더 많은 시간을 조업에 할애할 수 있었다”라고 협동조합의 전무이사는 말하였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관의 올해 장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일본 주변 수역으로 들어오는 꽁치 자원량은 92만 톤으로, 지난해 자원량(94만 톤)만큼이나 적은 수치이다.

일본 수산 정보 서비스 센터가 월요일에 발표한 단기 및 중기 예측에 따르면 꽁치는 9월 중순과 하순에 홋카이도 동부 수역에 오지 않을 것이며 10월에 오더라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꽁치는 10월 하순에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현 앞바다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헐적이고 드물게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 온도 상승은 일본 연근해 어획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의 태평양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오야시오 한류가 약해져 주변 수역의 수온이 높아졌다고 한다. 따라서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꽁치가 오지 않게 되었다. 일본의 국내 꽁치 어획량은 2008년에 약 35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여 2022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만 8천 톤에 이르렀다.

* 출처: The Japan News, 2024년 9월 14일



러시아 어업 부채, 100억 달러 돌파 투자 프로그램 시작 이후 부채 부담 급격히 증가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은행 지원 없이 투자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러시아 수산 업계가 직면한 부채가 총 1조 루블(109억 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전러시아어업협회(VARPE)의 회장인 게르만 즈베레프는 이러한 높은 부채는 업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저평가된 러시아 어업 부문에 대한 대출 기관의 신뢰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말하였다.

협회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7회 세계 수산포럼에서 “제 생각에 업계의 전체 미지급금은 이미 1조 2,000억 루블(131억 달러)에 달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수산 기업들의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공정한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수산업에 대한 은행의 신뢰도를 말해준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이것은 큰 장점이다. 은행들이 수산 기업에 기꺼이 대출을 해주고 있다.”

러시아는 2018년에 국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낙후된 수산물 가공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 프로그램은 육상 가공 공장을 건설하거나 국내 조선소에서 최신 선박을 인

수하는 대신 기업에 어업 쿼터를 제공한다.

이 이니셔티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선박이나 공장을 건설할 충분한 재원이 부족하여 많은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하였고, 업계의 부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몇몇 기업은 프로그램 조건을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았다.

7월 25일 현재, 러연방수산청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건설된 25개 가공 공장 중 17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약 60억 루블(6,870만 달러)의 누적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였다.

협회장은 업계에서 발생한 전체 부채의 대부분이 8~10개의 대형 어업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 안정성이 다소 취약해졌다.”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이 회사들은 주로 계와 명태라는 두 가지 어업에만 의존하고 있다.”

협회장은 높은 부채 수준은 어업 자산의 자본화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강력한 지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세계 20대 어업 회사의 총가치는 240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네슬레 회사 한 곳의 가치보다 적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9월 20일



2023년 러시아의 생선 소비 2% 증가

가구 인원이 증가할수록 연간 소비량은 감소

2023년 러시아의 생선 소비량은 2% 증가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동물성 단백질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메뉴에 가장 자주 등장한다. 동시에 소비는 어장과의 근접성, 풍습 및 물류와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2023년 말까지 러시아인의 식품 장바구니에서 생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이다.

러시아 거주자의 메뉴에 포함되는 생선의 양은 연평균 22.5kg이다. 이는 2022년보다 2% 더 많은 양이다. 소비 성장률 측면에서 수산물은 감자(전년 대비 5% 증가)와 육류(4% 증가)에 뒤처져 있다. 동시에 우유 및 유제품(1% 감소), 달걀(1% 감소), 설탕(4% 감소) 및 식물성 기름(5% 감소)보다 앞서 있다.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극동 연방 지구(연간 1인당 25.9kg)와 중앙 연방 지구(24.6kg)이다. 극동 연방 지구는 모든 수생 생물 자원의 약 75%를 생산하며 중앙 연방 지구는 잘 발달된 운송 및 저장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물류와 생산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야말로네네츠 지구의 평균 주민들은 연간 40.5kg의

생선과 수산물을 섭취한다. 이것은 요리와 생활 방식의 전통 때문이다.

반제품 및 완제품 수산물의 소비는 2023년에 14% 증가하였다. 전체 “생선 및 어류 제품” 소비에서 제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22.5kg 중 0.7kg)은 작았으나, 이러한 추세는 삶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조리가 간편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1인 가구는 연간 평균 39.9kg의 생선 및 수산물을 소비한다. 2인 가구는 연간 27kg, 3인 가구는 연간 20.6kg, 4인 가구는 연간 16.8kg을 소비하는 등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선 및 수산물 소비 수치는 낮아졌다.

생선 및 수산물 소비 역학은 불안정하다. 2010년 21.2kg에서 2013~2014년 22.3kg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21.9kg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농촌 인구의 연간 소비량은 22kg으로 도시 거주자의 21.7kg에 비해 생선을 더 자주 섭취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9월 30일



기후 변화, 일본의 어족 자원에 큰 영향

총어획량 사상 최저치 기록

도쿄에 본사를 둔 전국 콩치붕수망 어업 협동조합은 2023년 말까지 일본의 콩치 어획량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이는 2022년에 기록된 사상 최저 어획량보다 36% 증가한 수치이다. 일본의 어획량은 7,092톤에서 9,525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2008년에 어획된 35만 톤과 2012년에 어획된 22만 5,000톤에 비하면 현저히 뒤쳐진 수치이다.

일본 수산연구교육청(FRA)에 따르면 콩치 어획량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수면 온도이며, 대부분 콩치는 섭씨 15도 정도에서 어획된다. 일본 연안의 수온이 높으면 콩치 떼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 밖인 홋카이도 북동쪽의 서늘한 수역에 머물며 중국과 대만 어선들이 집중적으로 어획한다.

오징어 어업도 비슷한 어획량 감소에 직면해 있다.

일본 수산청은 최근 '2024년 일본 태평양 연근해 오징어 어획 장기 전망'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일본 내 오징어 어획량을 예측하였다.

보고서는 “올해 말까지 일본 수역을 찾는 오징어의 전체 자원량이 최근 몇 년(2019~2023년)의 평균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실시한 오징어 어획량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 한 척당 시간당 어획되는 오징어 단위 노력당 어획량(CPUE)이 최근 5년 평균인 5.95마리보다 크게 감소한 0.38마리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조사 지역에서 CPUE가 0을 기록하였다.

냉수성 어종의 감소와 함께 온수성 어종의 범위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 남부 규슈섬의 도시 후쿠오카는 북어 어획의 주요 항구였으나, NHK 보고서에 따르면 어획량이 약 30%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홋카이도가 어획량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어획량은 257톤에서 1,990톤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콩치처럼 북쪽으로 더 멀리 이동하면 일본 EEZ 밖으로 이동할 것이다.

해수 검사 결과 고등어, 전갱이, 방어 DNA가 이전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도호쿠와 홋카이도 연안에서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북부 어업 협동조합과 가공업체의 과제는 새로운 어종에 대한 추가 가공 능력을 구축하고, 새로운 어종에 대한 시장을 찾고, 어종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 수산청은 2018년 수산 백서에서 어획량 감소와 기후 변화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처음으로 밝혔다.

수산청은 해수 온도 상승이 해양 생태계와 어족 자원에 영향을 미쳐 특정 어종의 어획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하였다. 또한 해수 온난화로 인한 어류 분포와 이동 패턴의 변화가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0년 정도마다 냉수기와 온수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일반적인 주기적 패턴과는 달리 어획량 감소가 영구적일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9월 18일



생선 소비 증대를 위하여 가공 개발이 중요

자금 조달을 위한 유리한 대출 제공 등 유인책 마련 필요

생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선 가공 및 지원 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Dalpromryba의 대표이사 Roman Rybakov는 말하였다.

7월에 승인된 로드맵은 러시아 국내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객관적인 통계 작성, 러시아인의 소비자 선호도 연구, 생선의 건강상의 이점,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어류 가공에 대한 지원과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창출이 필요하다. 수산물 가공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자금 조달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 측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업계에

유리한 대출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의 주요 금리에서는 기술 재장비와 생산량 증가의 기회를 고려하기가 매우 어렵다.

러시아 어류 가공이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장비 생산을 포함하여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조건 조성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제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명확히 필요하다.

Rybakov는 여건이 조성되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은 시장을 연구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소개하고, 이러한 제품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등 알려진 모든 도구와 기회를 사용할 것이다.

* 출처: Fishnews, 2024년 9월 26일

2024년 7월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전반적으로 수입가격 상승, 수입량 감소

2024년 7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세부적으로 냉동 명태는 17.4%, 고등어는 26.0%, 냉동 낙지는 21.8% 상승하였으며, 냉장 연어는 25.5%, 냉장 낙지는 22.8%, 미꾸라지는 11.3% 하락하였다.

전년 동월 대비 수산물 수입량은 냉동 명태 7만 4,401톤으로 12.9% 감소, 냉동 대구는 7,246톤

으로 43.5% 감소, 냉동 오징어 5만 6,961톤으로 18.2% 감소, 냉동 꽁치 8,106톤으로 20.7% 감소, 냉동 고등어 2만 4,570톤으로 33.1% 감소하였으며, 냉동 주꾸미 1만 5,433톤으로 18.1% 증가, 냉동 아귀 1만 9,942톤으로 9.8% 증가, 냉동 조기 8,492톤으로 2.3% 증가하였다.

* 출처: 냉가 9월호, 2024년 9월 30일



과학자, 고등어 자원량 42% 감소 발견

노르웨이의 지속적인 남획에 대한 대처 필요

5척의 연구선에 승선한 4개국 과학자들이 고등어 자원량이 42% 감소하고 개체수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올해 말 발표될 ICES(국제 해양개발위원회)의 TAC 권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지난주 3대 주요 원양 어종의 관리 및 할당량 분배를 논의하기 위한 연안국 간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북유럽 국가들이 TAC의 상대적 할당량을 늘리겠다고 나서면서 총 할당량이 ICES가 권고한 상한선의 140%를 초과하는 결과를 낳는 등 3개 어종에 대한 관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쟁이 계속되면서 해당 자원에 대한 MSC 인증이 취소되고, 남획으로 인해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NGO 등의 경고가 이어졌으며, 북대서양 원양어업 옹호 그룹(NAPA)은 대규모 국제 가공업체 및 도매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 거부 운동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수년 동안 북유럽 국가들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반대했던 영국은 12개월 전 노르웨이와 '접근 할당량' 협정에 합의하면서 분쟁에서 사실상 편을 바꿨다. 올해 6월에는 페로제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지속 불가능하게' 어획하는 연안국에 대한 잠재적 제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착 상태에 대응하였다.

고등어 자원량의 42% 감소와 청어 자원량의 24% 감소는 2025년 ICES TAC 감소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 어류 생산자는 “고등어를 공유하는 연안국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노르웨이의 지속적인 남획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주요 회유성 어종인 고등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노르웨이와 다른 북유럽 연안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들의 어획량은 TAC 합계의 45%를 초과한다.”

“아일랜드는 서부 고등어에 대한 주요 EU 쿼터 보유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어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아일랜드는 상당한 쿼터 감소를 겪었다.”

“북유럽 국가들의 심각한 남획을 고려할 때 자원량에 대한 우려는 놀랍지 않다. 자체적으로 부풀려진 쿼터를 근거로 지역간 연계 오류도 드러나고 있다. 노르웨이 선박은 현재 영국 해역에 접근하여 막대한 자원을 어획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주 5만 3,000톤 이상의 고등어를 어획하였다. 대부분(약 90%)이 영국 해역, 주로 셰틀랜드 남동쪽에서 잡힌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북동대서양의 무책임한 어업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다. 유럽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무역 조치를 취하고 적용해야 한다. 영국도 너무 늦기 전에 유럽과 함께 이러한 무모한 관행을 멈추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Fishing News, 2024년 10월 3일



중국 어분 공급을 위한 러시아의 새로운 트롤 어선

한국, 지난해 러시아 어분의 최대 공급 시장

러시아의 국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건조된 선박으로 중국은 러시아 어분의 최대 단일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협회는 중국이 러시아의 국가 지원 투자 프로그램에 따라 건조된 신규 트롤 어선의 어분 및 어유 공급을 승인함으로써 러시아의 양식 사료 원료 생산 증가에 따른 거대한 잠재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러시아 어선주 협회(FSA)는 성명에서 중국 시장에 공급용 러시아 생산 시설의 허가리스트에 러시아 어업 회사(RFC)와 아틀란트리브플롯의 신규 트롤 어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오신체프 FSA 회장은 성명에서 중국 관세총국이 발표한 목록을 언급하며 “새로운 러시아 트롤 어선이 중국에 어분 공급업체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관세 장벽이 제거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어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선박 승인으로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러시아산 어분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장기 국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27척의 대형 및 중형 어선을 발주하였다. 대부분 어분과 어유를 비롯한 다양한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선상 공장을 갖추고 있다.

명태와 태평양 청어 쿼터에 대한 대가로 최소 800억 루블(8억 7,570만 달러)을 신규 선박에 투자하고 있는 RFC는 어선단 교체 측면에서 현재까지 가장

큰 진전을 이루었다.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발주한 트롤어선 10척 중 4척은 이미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운항 중이며, 5번째 선박인 카피탄 유낙은 지난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해군 조선소에서 진수되었다. 신조된 트롤 어선은 하루에 최대 40톤의 어분을 생산할 수 있다.

러시아는 어분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데이터 분석 그룹 Agroexport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분 생산량은 연평균 8.4%씩 증가하여 2023년에는 17만 4,100톤에 도달하였다.

어분 수출도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14만 3,000톤을 넘어섰다. 수출액은 11% 증가한 2억 2,700만 달러이다.

Agroexport는 2024년 말까지 러시아의 어분 생산량이 11% 더 증가하여 19만 3,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수출량은 30% 이상 증가한 18만 9,000톤으로 예상된다.

Agroexport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러시아 어분의 최대 단일 구매국으로, 전년 대비 각각 8%, 14% 증가한 1억 1,000만 달러 상당의 7만 2,000톤을 수입하였다.

2위를 차지한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 어분 수입량이 6만 6천 톤으로 25%, 금액으로는 1억 9백만 달러로 27% 증가하여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다.

3위 시장인 벨라루스의 경우, 2023년에는 560만 달러 상당의 3,900톤을 수입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10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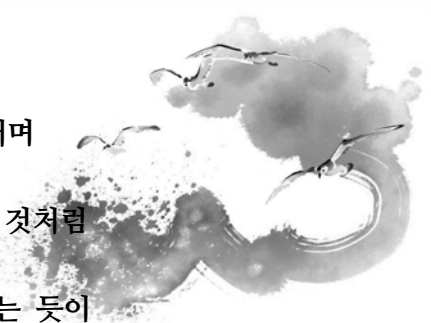
효에게. 2002. 겨울

한강

바다가 나한테 오지 않았어.
겉먹은 얼굴로
아이가 말했다
밀려오길래, 먼 데서부터
밀려오길래
우리를 덮고도 계속
차오르기만 한 줄 알았나보다

바다가 너한테 오지 않았니
하지만 다시 밀려들기 시작할 땐
다시 끝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
내 다리를 끌어안고 다시 뒤로 숨겠지
마치 내가
그 어떤 것,
바다로부터조차 널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기침이 깊어
먹은 것을 토해내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 엄마를 부르던 것처럼
마치 나에게
그걸 멈춰줄 힘이 있는 듯이





9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84% 감소, 수입량 24% 감소

□ 생산동향<9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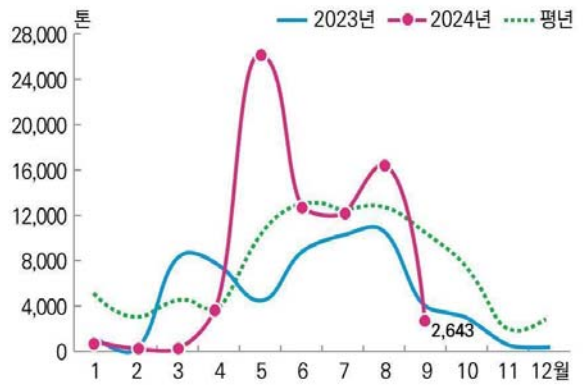
9월 오징어 생산량은 2,643톤으로 전월 대비 83.8% 감소하였으며, 전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39.0%, 74.9% 적었다.

연근해산 생산량은 2,556톤으로 전월 대비 21.9% 감소하였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4.3%, 68.6% 적었다.

이는 어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해안의 여름 어기가 조기 마무리되었고, 명절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도 줄었기 때문이다.

수협별 위판량은 여수수협이 442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공동어시장(422톤), 서산수협(397톤), 삼천포수협(298톤) 등의 순이었다.

9월 원양산 반입량은 남서대서양 어획 물량의 반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량(87톤) 반입되었다. 한편, 9월까지 원양산 오징어 누적 어획량은 5만 9,501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6.8%, 89.2%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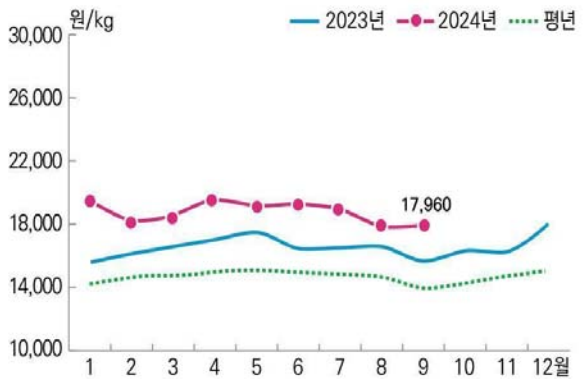


□ 가격동향<9월 냉동 오징어 소비자가격, 정부 비축 물량 방출로 전월 수준 유지>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1만 3,462원으로 전월 대비 28.0% 상승하였으며,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40.5%, 69.2% 높았다.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kg당 1만 7,920원으로 산지가격 상승에 따라 전월 대비 12.2% 올랐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7%, 16.4% 높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만 7,960원으로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이 시행됨에 따라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생산 부진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년 및 평년보다는 가격이 각각 14.1%, 28.8% 높았다.





□ 수출입동향<9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감소>

9월 오징어 수출량은 2,259톤으로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년 및 평년보다도 많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608톤)과 미국(397톤)으로 수출이 많았고, 그 외 대만, 일본,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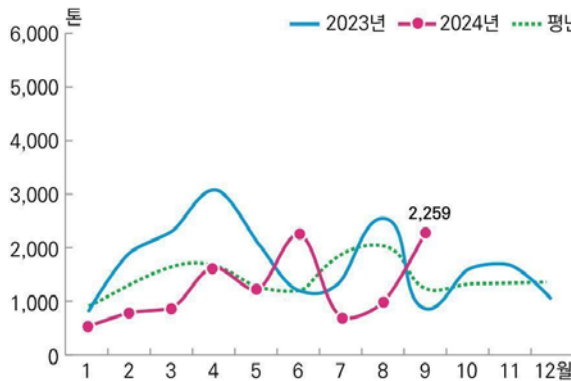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1,740톤),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366톤), 조미오징어(102톤) 등의 순이었다.

9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482톤으로 전월 대비 23.6% 감소했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 11.2%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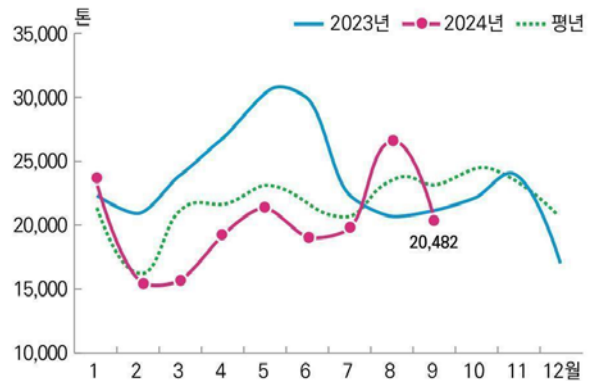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중국(1만 580톤)에서 수입된 물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페루산(6,639톤), 칠레산(1,203톤) 등의 순이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9,160톤), 냉동오징어(7,899톤), 조미오징어(2,963톤), 건조오징어(459톤) 등이 수입되었다.

<오징어 수출량 추이>



<오징어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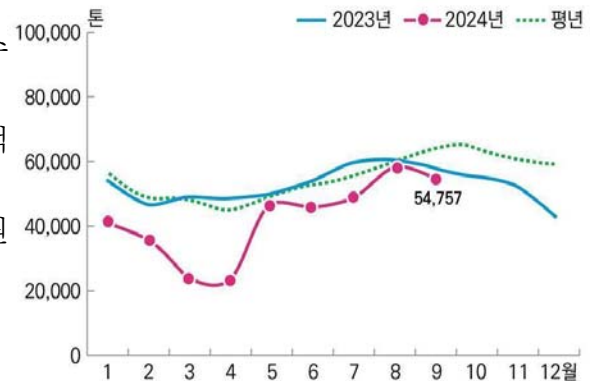


□ 재고동향<9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9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5만 4,757톤으로 생산과 수입이 줄며 전월 대비 5.8% 감소하였다.

한편, 전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각각 5.7%, 14.0% 적었다.

연근해산 재고량은 전월 대비 5.2% 감소하였으며, 원양산도 5.9% 감소하였다.



* 출처: KMI 수산관측 10월호



9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반입량 26% 증가, 수입량 2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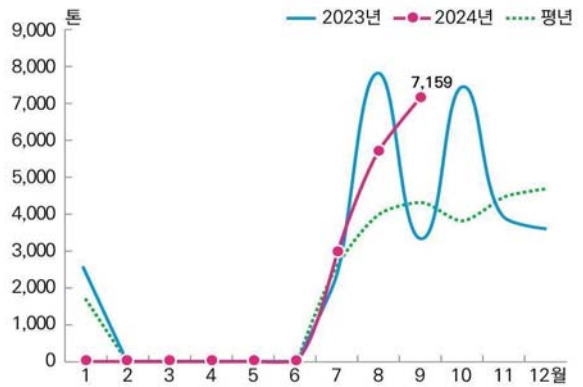
□ 생산동향<9월 원양명태 반입량, 전월보다 증가>

9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7,159톤으로 전월 대비 25.8% 증가하였다.

전년 동월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115.6%, 65.0% 많았다.

9월까지 누적생산량은 1만 5,946톤으로 전년과는 비슷하였으나, 평년보다는 25.6% 많았다.

한편, 9월 30일까지 어획된 원양명태는 2만 1,611톤으로 배정된 쿼터(2만 9,000톤)의 74.5%를 소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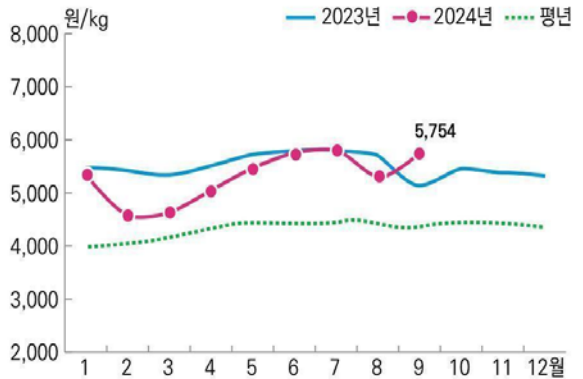


□ 가격동향<9월 명태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상승한 kg당 5,754원>

9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368원으로 전월 수준이었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평년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던 전년 동월보다는 5.0%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754원으로 전월 대비 8.0%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12.5% 높았다.





□ 수출입동향<9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증가한 3만 9,863톤>

9월 명태 수출량은 4,004톤으로 전월 대비 49.5%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및 평년보다는 각각 23.1%, 50.4%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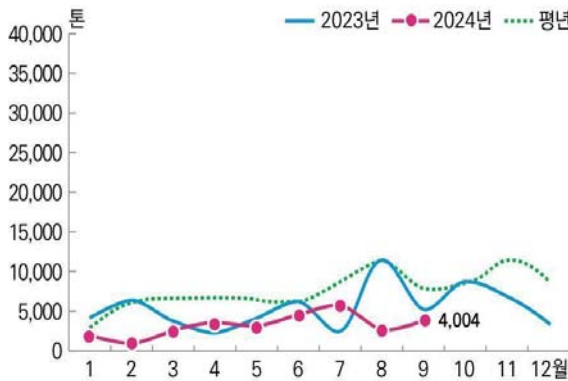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보면, 냉동연육은 태국 1,992톤, 멕시코 476톤을 수출하였고, 중국으로 냉동필렛 564톤, 냉동제품 534톤을 거래하였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23.9% 증가한 3만 9,863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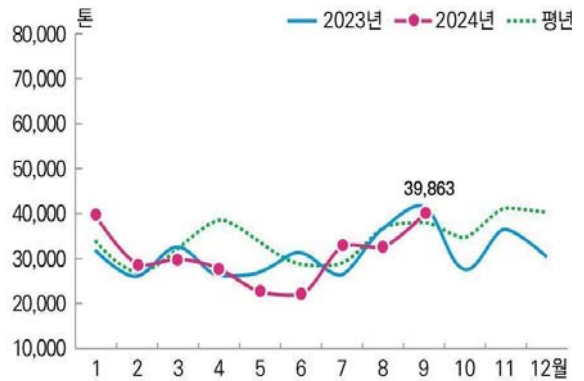
수입량은 평년보다는 2.6% 많았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4% 적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러시아산 냉동제품이 1만 7,818톤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산 냉동필렛 9,600톤, 러시아산 냉동연육 5,834톤, 미국산 냉동연육 3,773톤 등을 수입하였다.

<명태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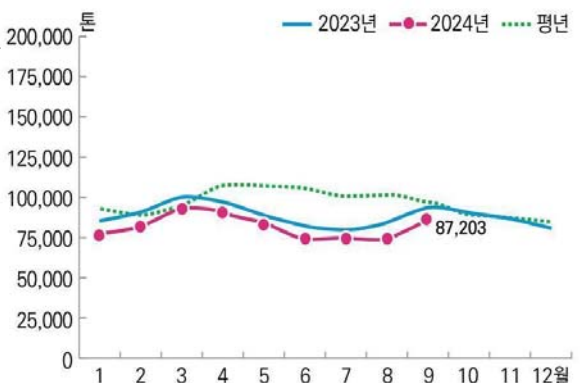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 추이>



□ 재고동향<9월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9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 대비 15.4% 증가한 8만 7,203톤이었다.

그러나 전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각각 7.6%, 11.0% 적었다.



* 출처: KMI 수산관측 10월호